

지역사회획득 *E.coli*의 항생제 내성 분석

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¹, 진단검사의학과²

고수영¹ · 기현균¹ · 박정환¹ · 조영일¹ · 최영숙² · 이종호¹

Assessment of Antibiotic Resistance in Community-acquired *E.coli* Infection

Soon-Young Ko¹, Hyun-Kyun Ki¹, Jung-Hwan Park¹, Young-Il Jo¹, Young-Sook Choi¹, Jong-Ho Lee²

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, Laboratory Medicine²

목 적 : 지역사회획득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의 80% 이상이 *E.coli*이며 1999년 미국감염학회 지침에서는 초치료 trimethoprim-sulfamethoxazole을 사용하되,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20%까지 증가한 지역에서는 quinolone 제제의 사용을 권하고 있다. 그러나 최근 초치료에 quinolone계 항생제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quinolone에 대한 내성 증가가 우려된다. 이에 저자들은 지역사회획득 요로감염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균인 *E.coli*의 항생제 내성의 양상을 조사하고자 하였다.

방 법 : 연구 대상은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건국대학교병원을 내원한 18세 이상 환자들 중 내원 24 시간 이내에 요배양에서 *E.coli*가 105 이상이 동정이 된 환자들의 자료를 후향 적으로 분석하였다. 요로 폐색, 암, 결핵을 포함한 다른 감염증을 동반한 환자와 도관 삽입한 환자,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, 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 항생제를 사용한 환자와 입원 중 발생한 요로감염 환자는 제외하였다.

결 과 : 요배양에서 *E.coli*가 동정이 된 79명의 환자 중에서 여성이 96% (76명)였으며, 평균 연령은 52.2세였다. 이 환자들 중 5명에서 trimethoprim-sulfamethoxazole에 대해서만 내성을 보였고, 3명은 quinolone과 trimethoprim-sulfamethoxazole 모두에 내성을 보였으며, 8명은 quinolone에 대해서만 내성이 나타났다. 즉, quinolone 내성균주는 13.9% (11명)에서 관찰되었다. *E.coli*가 동정된 전체 환자의 58% (47명)에서 초기 항생제로 quinolone을 사용하였고, 내성을 나타낸 환자 11명 중 27% (3명)에서 quinolone을 사용하였다.

결 론 : 요로감염증 환자들에서 흔히 동정되는 *E.coli*의 quinolone 생체의 내성율은 13.9%로서 기존의 보고와 유사하므로 기저질환이 없는 지역사회획득 요로감염의 초치료로서 quinolone 제제의 사용은 아직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.